

장흥, 빈대 확산 대응 합동대책반 운영

다중이용시설 등 소독 의무 대상시설 사전 지도점검

장흥군은 최근 일부지역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해 다수 피해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빈대 확산 대응 합동 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산하 8개부서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은 다중이용시설 등 172개소를 지정, 숙박업소 등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목욕탕 등 감염취약시설은 자율점검과 선제적 방역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으나, 인체 흡혈시 수면 방해, 가려움증,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한다.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

로 씻고 증상에 따라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가정에서의 빈대 대응방법은 스틱 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오염된 직물류는 건조기를 이용하고, 빈대 서식처는 약국 등에서 구입한 살충제를 살포해야 된다.

만약, 여행 중 빈대에 노출되었다면, 여행용품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으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빈대 신고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빈대 상담 및 전문 업체를 안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장흥지역자활센터와 연계 직접 방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영광, 노후 건물번호판 야광으로 교체

도시미관 개선·신속한 구조활동 지원

영광군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편리한 위치 찾기,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영광읍 9개 리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야광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했다고 13일 밝혔다.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부여된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표지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 및 구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은 영광읍 9개 리(교촌리, 남천리, 녹사리, 단주리, 도동리, 무명리, 백학리, 신하리, 학정리) 3634개를 교체했으며,

특히 야광으로 제작하여 야간에 도편리한 위치 찾기 및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위치 파악으로 야간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물번호판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 음성 위치 안내 및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더 위치 찾기가 편리해지고, 문자 신고가 가능한 SOS One-Stop 신고 서비스 제공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도 간편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청춘 신작로 거리 버스킹 보러 가자

17일부터 이틀간 공연

화순군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청춘 신작로 일원에서 오는 17일과 18일, 총 이틀간 거리 공연(버스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순읍 향정리 94-1번지 일원에 조성된 청춘 신작로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신작로 거리와 야외공연장, 소상공인센터, 청년센터로 새롭게 변모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거리 공연(버스킹)을 시작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만큼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

으며, 17일 금요일은 2시부터 8시 30분까지 거리 공연(버스킹)만 개최한다.

18일 토요일은 같은 시간대에 거리 공연(버스킹), 벚꽃시장(플리마켓), 체험 버스 등 다양한 행사를 화순군과 향정지구 주민협의체, 청춘신작로 마을 관리 사회협동조합에서 공동 추진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춘 신작로 거리 공연(버스킹)은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며, 가을만의 감성 매력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담양 ‘구운 한과’ 미국 코스트코에 40톤 수출

향토기업 (주)산들해, 튀기는 방식 대신 구워서 주목

이병노 군수 “해외시장 개척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

새로운 한과의 길을 개척한 ‘담양 구운 한과’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향토기업인 (주)산들해에서 생산한 한과 수출 선적식이 이날 이병노 군수, 최용만 군의회 의장, 김현만 (주)산들해 대표,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노윤희 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산들해는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것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워서 만든 한과를 생산해 미국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수출 물량은 40t 규모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내 5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미 전역에 59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는 3억4000만 명의 미국 인구 중 1억2000만 명이 넘는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기업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 판촉 행사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 한편 담양군은 올해 12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전남도 해외 상

설관매장에서 농특산물 수출·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담양=조승재 기자

화순, 전남도 농정업무 평가 ‘4년 연속 우수상’ 수상

논 타작물 재배 추진·벼짚 환원 사업 높이 평가

화순군은 최근 장성군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분야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업인의 날 기념 유공자 분야 수상도 같이 이뤄졌는데, 화순군 이양면 조방리농장 민권식 대표가 산업 포장을, 도곡파프

리카영농조합법인 문형운 대표,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 구호성 회장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논지 대장 일제 정비, 논 타작물 재배 추진, 시설원에 재배면적 확대 및 청년농 육성, 쌀 판매 및 브랜드 쌀 육성,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 확대, 구제역 등 방역 추진 및 축산물 위생감시 분야

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및 출하 장려금 지원, 벚짚 환원 사업, 한우 브랜드 육성, 축사 자동 급이 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 지원, 한우·젓소 인공 수정요 지원, 거래 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가점받은 것도 수상에 큰 몫을 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 내년 본예산 5043억원 편성... 1.47% 감소

군의회 제출... 국·도비 확보 노력 2년 연속 5000억원대 유지

함평군은 지방교부세와 자체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4년 본예산 산안을 전년 대비 1.47% 감소한 5043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총 5043억원으로 일반회계 4952억원, 특별회계 91억원이며 올해 본예산 5118억원 대비 75억원(1.47%) 가량 감소했다.

함평군은 2023년 함평군 최초 본예산 5000억원을 돌파했으며 2년 연속 5000억원 시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는 세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도비를 최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449억원(29.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익직불사업 231억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5억원,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0억원,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 40억원 등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46억원(21.13%)을 반영해 기초연금 40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9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3억원 등을 편성했다.

환경 분야는 619억원(12.50%)으로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129억원,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9억원,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52억원, 함평 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

업 32억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333억원(6.73%)으로,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35억원, 문화예술회관 30억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0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57억원, 월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정적 경비 세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본예산 산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12일 최종 확정된다.

/함평=김용희 기자

장성군 보해양조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장성군을 대표하는 기업 ‘보해양조’의 임직원들이 장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군은 최근 보해양조 조영석 대표이사과 임직원 10여 명이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1950년 고(故) 임광형 회장이 설립한 보해양조는 보해소주를 비롯해 복분자주, 매취순, 순회막거리, 부라더 소다 등을 출시해 고트 사랑을받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오랜 세월 지역민에게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장성공장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면서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고향사랑이(에)를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장성=심재식 기자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곱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담양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관련 문의 ☎ 061) 380-3217~3220

대송맑은 담양쌀

대송맑은 담양한우

떡갈비

전통주

담양사랑 상품권

한과(약과)

쌀엿

장류

죽순

관광문화상품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단감

담양에 기부하시면 **고향의 마음이 담긴 정성 가득한 답례품**을 드립니다.